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 본격 시동

‘메가탄소밸리 사업 예타’ 확정... 내년부터 5년간 714억 투자 11개 과제·11개 핵심장비 구축 추진

전북도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밸리 2단계 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사업(이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가 기재부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전북,경북도 양도가 협력한 예타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돼 왔다.

이번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산업부와 전북도,경북도가 협력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714억을 투자하고 미래 탄소 산업수요에 대응해 탄소복합체 공정효율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 중심의 11개 과제와 11개 핵심장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로 인해 향후 세계 탄소시장 선

전에 대응한 국내 탄소산업 발전 촉진과 함께 국내 수송기기 및 건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탄소복합체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도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이룬 R&D와 인프라 등 성과에 바로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추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전북은 그 동안 탄소밸리 구축사업(1단계, 2011~2016년)으로 탄소섬유 양산화 성공, 탄소복합체 상용화기술 센터 개소 등을 통해 탄소복합체 제조, 가공, 성형 인프라 등 국내 탄소산업의 기초를 구축해 왔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로 그 동안의 노후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수송기기, 건설 및 고부가가치 탄소산업 개발 등 탄소복합체 부품·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탄소산업 밸류체

인 확립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전북과 경북이 기술개발(탄소소재~중간재~핵심부품~완제품 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도 산업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분담 추진함으로써, 후방산업인 탄소소재 산업이 자동차 및 건설 등의 전방산업으로 급속히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탄소산업 투자촉진 유발과 함께 일본, 독일 등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여론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는 지난해 3월 전북,경북도가 예타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제성 미흡 등을 사유로 수차례 탈락 위기와 양도 간 균형배분 문제를 극복한 끝에 어렵게 예타를 통과했다.

특히, 도와 지역 현안에 도내 3당 정치권의 여·야가 없는 공조와 협치가 주요했다는 평가다.

송하진 지사는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도내 여야 3당 정치권에 감사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반영은 물론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이번 예타를 통과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도부터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나가고 R&D 공모사업 대응, 신속한 핵심장비 구축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부, 경북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국도 4개 구간 올해 개통

전북지역 국도 4개 구간 도로가 올해 말까지 완공 개통된다.

국도교통부는 익산시 황등면~오산면을 연결하는 국도23호선 10.8km를 비롯한 전북지역 4개 구간 국도가 4차로 30일까지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에 개통되는 4개 구간 모두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해소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도23호선 익산시를 우회하는 황등~오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되면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등 전북 내륙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국도27호선 장신-송학 1.2km 구간이 8차로로 확장돼 익산시 우회도로와 연결되면서 익산 KTX 역사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거점 도시로 발전이 전망된다.

교통사고가 잦은 기존 국도17호선 임실읍~오수면 7.88km 구간의 위험도로도 개선된다.

고창읍에서 성송면을 잇는 국도23호선 6.8km 구간이 4차로 개통된다.

국도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도로 개선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중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비상시국·연말연시 예방감찰 강화

권역별 5개반·23명의 감찰반 편성... 내년 1월 6일까지 상시 공직감찰 체계 가동

전북도는 연말 및 탄핵정국, A발생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각종 도정 핵심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내년 1월 6일까지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가동한다.

13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비상시국에 접어들면서 공직자들의 기강행위와 대민업무 소홀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시국,연말연시 공직기강감찰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권역별 5개반, 23명의 감찰반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13일 도청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 시,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행정자치부 협조사항 및 도 공직감찰 방침을 전달하고, 시,군이 연계 협력 공조체제로 선제적 예방감찰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무조건 민원인 접촉을 기피하거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소극행정 사례는 엄중 문책해 업무에 매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예방 공직감찰 방향은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근절, 취약분야 비위에 대한 중점감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 체계 점검

으로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 근절,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허가 지연 방지, 예산소진을 위한 연도말 특혜성 계약, 재량권 남용, 민원인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예방감찰, 상시감찰,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해 축산부서와 보건부서의 협력으로 빈틈없는 방역활동이 이뤄지는지, 방역장비 확보와 인체감염 예방 조치는 제대로 돼 있는지 등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이 되도록 감찰 중점 항목에 포함해 점검한다.

또한 안전취약분야는 점검뿐만 아니라 예방감사를 중점 추진해 겨울철 재난,재해 위험지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우려 현장을 방지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현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가 업무협업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직무를 수행할 시기이고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 대책에도 노력할 시기며, 도, 시,군 감사부서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감찰결

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전파해 공직사회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시 또다시 발생

고령병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북지역 대표 철새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불과 5~6km 떨어진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소성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폐사한 오리 3마리에 대해 검사를 벌인결과 1마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초동방역팀이 투입됐으며, 방역당국은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를 벌이고 있다.

이 농가는 약 2만1800마리의 오리가 있으며,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예정이다. 또 이 농가와 반경 500m 내에 있는 종오리 농가(약 2만 5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 수출·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

신젠타코리아 2억불 등 16개사 수출탑... 7명 정부포상 등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주관하는 ‘제19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가 13일 호텔르윈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을 비롯한 수출유관 기관장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 업체로 (주)피코바이오, (주)두성인테네셔널, (주)싱그린에프에스, (주)엔아이비, 삼동허브, (주)한미원 등 6개 기업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신젠타코리아(주)가 2억불 수출탑, 성일하이텍(주)와 (주)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이 3,000만불 수출탑, 비나텍(주), 에스시디티(주), (주)삼원오토텍, (주)지노모터스 등 4개사가 1,000만불탑 등 16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와 (주)그로스의 김현주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주)코스캠 최현아 팀장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7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박도운 주임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국내의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외시장 다각화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을 통해 전북기업들이 수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수출 및 투자유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착수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북도가 새만금신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 및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13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종합물류연구원(주)황도엔지니어링이 용역 수행계획을 보고하고,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원, 전문가 등 항만물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래 물동량 수요를 분석해 집안시설 규모 확대(2~3만톤급 → 5만톤급 이상) 논리를 개발했다.

또 군산항 경쟁력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군산항과의 기능 재정립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물동량 확보 위해 도내 수출입 화물 물류흐름 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항만이 용자, 관련업체, 학계, 전문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군산해수청,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11월까지 항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